

#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2009

## 친환경 강화 속 다기능화한 제품 눈길

제17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2009가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B홀에서 'All of Visual'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전시회에는 디지털프린팅 시스템, 미디어 및 잉크, 제작시스템, 후가공 및 장비, LED 모듈 및 조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IT기술 접목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즈까지 사인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한눈에 엿볼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올해 코사인전은 200개 사, 1000개 부스 규모로 열렸으며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 관람객이 2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친환경 신기술 제품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디젠, 출력과 커팅 동시에 하는 UV LEC-330 선보여

디젠(대표 이길헌)은 LED-330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LEC-330은 엠보싱 코팅을 하는 부분에 맞춰서 별도로 필름을 제작하고 판을 제작해서 코팅액을 바르는



공정을 거치지 않고 1대의 기계로 출력과 동시에 엠보싱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와 사용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사소재는 물론 라벨이나 스티커용지, PE필름, 인쇄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소재에 사용이 가능하다.

에스코 그래픽스의 디지털 커팅 제작 시스템

에스코 그래픽스(지사장 이도상)는 디지털 커팅 제작 시스템인 Kongsberg XL 시리즈를 선보였다. KongsbergXL시리즈는 골판지, 상자, 코팅 블랭킷, 목재 및 다양한 플라스틱



류의 소재를 처리할 수 있다. 양면에서 커팅과 접지선을 완벽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처리하는 백스코어 기능 및 파워헤드의 강력한 Creasing 성능을 갖춰 자동바코드 인식으로 작업 생산성을 높였다. 각기 다른 소재에 따라 설정된 파라미터가 있어 별도의 셋업이 불필요하며 작업의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삼원특수지, 폭넓은 용도 자랑하는 폴리아트 출품

삼원특수지(대표 이상욱)는 태그와 라벨에 폭넓은 적용이 가능한 폴리아트를 선보였다. 인쇄와 가공에 편의성이 뛰어난 폴리아트는 오프셋, 플렉소, 그라비아, 로터리 스크린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인쇄할 수 있다. 잉크도 수성, 솔벤트, UV잉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를 재현할 수 있어 바코드 인쇄에도 적합하다. 식료품에 직접 접촉해도 관습을 정도로 무해하다. 또한 점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용 라벨, 재접착 라벨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특수표면 코팅으로 전통적인 인쇄와 각종 특수 인쇄도 적합하다.

지엠피, 라미네이터에서 필름까지 다양한 제품군 선보

지엠피(대표 김양평)는 EXCELAM 1670 SWING, BOARDMAS TER1600, LAMI NEX-325 등의 라미네이터와 프로넥스, 울트라본드, 폴리넥스 울트라본드 등의 다양한 필름 제품을 선보였다.



올해 미국 및 유럽의 식품위생 인증과 유아용 장난감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지엠피는 친환경 추세에 발맞춘 필름 제품군과 이를 사용해 효용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미네이터 등을 선보여 전시회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